KR 상생뉴스

# 경춘선 폐선철도 개발 출자회사 설립

## - 폐선철도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 -

2010년말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폐선으로 남게된 기존 노선 중 춘천시 남면 서천리 일대~김유정역간 약 20km 구간의 궤도 및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철도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하여 금년 6월 (주)대양 등 3개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9월 26일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약300억 전액이 민자로 시행되며 폐선철도 부지 및 궤도 시설을 활용하여 레일바이크, 꼬마열차, 기차하우스, 공연장 등 철도 종합테마파크를 개발하는 국내최초의 대규모 사업으로써, 철도시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단과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춘천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획되어 이루어졌으며, 공단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춘천시는 새로운 관광자원 유치를 통해 관내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춘선 폐선철도 개발 사업은 금년 10월초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후 인·허가, 건설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레일바이크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동해남부선(우동~송정 약 14km) 등 장래 발생될 폐선철도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상생협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운영본부 김정호 기자〉

#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신분당선 현장 방문

## - 특화전략 반영, 민자사업 좋은 사례 될 듯 -

국토해양부 여형구 교통정책실장은 지난 9월 28일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O) 현장을 방문하여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중인 열차(무인운전)의 시승을 마친 후 공사현장 및 종합관제실을 둘러보고 현장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여 교통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경전철 등의 예를 볼 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민자사업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분당선은 민간이 제안하고 시공·운영하는 철도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특화전략 등을 반영하고 있어 민자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도모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개통 후에는 방재 및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에 특히 유념해 주기 바라며, 지난 한전 사태와 같이 전력공급 중단시를 대비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등과의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국토해양부에서도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 협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본부 정신택 기자〉

# 신안산선, 서해선 송산차량기지 기술조사용역 보고회 개최

설계기술실(실장 김병호)은 신안산선, 서해선, 원시~소사~대곡 노선에 운행될 차량의 유치 및 검수 시설인 송산차량기지 사업의 일괄입찰(T/K) 발주를 위하여 기술조사용역('11.6.15~11.11)을 시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지난 9월 28일 6층 회의실에서 철도공사 및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차량기지건설 사업은 토목, 궤도, 건축, 검수, 시스템 등 11개 분야 복합공종의 플랜트 공사로써 그동안 건설완료 후 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인수인계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건축기지설계처는 '10. 5월 수립한 「차량기지건설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철도공사 및 공단 분야별 부장급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 인수인계까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분야별 협의체 위원 및 용역사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조순형 건축기지설계처장은 이 자리에서 철도차량 점검·정비시설인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복합공종의 사업으로 노반, 궤도, 건축 등 그 어느 사업보다 계획단계부터 철도공사와 공단의 긴밀한 협조 및 각 분야별 상호 인터페이스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영자 입장에서 고품격, 고효율 차량기지 건설을 위하여 양 기관 및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건축기술설계처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철도공사 및 공단 분야별 관련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노선의 차량기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의 이미지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에 부합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차량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설계기술실 강대열 기자〉

# 내실있는 동반성장 협의회 수도권본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 - 수도권본부 3/4분기 동반성장 협의회 개최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9월 29일 판교역 인근 신분당선(주)에서 2011년 3/4분기 동반성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수도권본부 동반성장 협의회는 신분당선 강남~정자구간 개통을 앞두고 시행되는 특별시승행사에 동참하여 최신 철도시스템 현황을 외부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국 본부장은 알선청탁 안받기 등 수도권본부 반부패 척결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고, 전분기 동반성장 협의회시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행사 마무리 후 신분당선(주) 담당자들의 안내로 종합관제센터에서 국내 중전철 최초 무인운전 열차운행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승열차를 탑승하여 판교에서 강남역까지 왕복하였다.

2011년 6월 본부장 부임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협의회가 위원들의 철도경험에 보다 도움이 되고, 대다수 협력사 소속인 외부위원들의 소속감 및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원들은 시승이후 만족감과 이런 자리를 주최한 수도권본부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본부는 향후 4/4분기 동반성장 협의회는 위원들 임기중 마지막 협의회로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좀 더 내실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황용하 기자〉

#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활성화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안전문화 선진화 정착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단 및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안전 위해 요인을 줄이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9월 20일 오리~수원 5공구 현장에서 공단 및 협력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행하였다.

금번 오리~수원 5공구에서 시행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안전결의문 낭독, 무재해 구호 제창 등을 통해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고, 위험개소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앞으로도 수도권본부는 「안전점검의 날」운영을 활성화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역지사지 안전체험활동, 안전캠페인 등을 통하여 「안전점검의 날」 철도건설현장 재해율 Zero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이재필 기자〉

# 건설본부, 소제동 아이들과 철도사랑 체험

## - 공단 철도 홍보관 견학 등 철도 비교 체험 -

건설본부(본부장 오병수)는 제112주년 철도의날 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9일 대전시 동구 소제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자혜원' 어린이들 15명을 초청하여 공단 홍보관 견학과 대전도시철도공사 판암기지사무소와 연계하여 철도 비교체험 행사를 가졌다.

아이들은 대전도시철도공사 판암기지 모의 운전연습실 및 차량검사고 등을 견학후, 공단 홍보관에서 터치모니터와 스크린을 클릭하면서 철도에 대한 주요역사와 친환경 철도, 고속철도 신기술·신공법을 보다 쉽게 관람하였으며, 특히 4D입체영상시에는 KR첨단 기술력인 고속철도 열차가 직접 우리몸으로 빨려들어오고, 의자가 좌우로 움직이는 특수효과로 아이들은 환호하였고 철도를 온 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체험의 장이 되었다.

금번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고속철도 신기술·신공법과 KTX 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철도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이드를 심어 줄 수 있었다.

〈건설본부 김태용 기자〉

KR-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곳

# 바다로 미래로 가는 도시, 여수

## 바다와 인간이 함께 숨 쉬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역사와 현재의 공존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하모니

전남 여수는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바다를 밭 삼아 양식을 한다.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이 한몫을 하는 관광산업도 도시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바로 그것이다. 여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바다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의 바다는 전남 해양수산과학관과 소호요트장에서 만날 수 있다. 바다의 생태를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미래의 바다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이다.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공간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길 미래의 바다 모습을 상상해 보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여수시 군자동에 자리한 진남관(국보 제304호)은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건물이다. 75칸 규모의 이 건물은 전라좌수영의 객사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해인 1599년에 지어졌다. 건물 이름인 〈진남관(鎭南館)〉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를 잃을 뻔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있다.

진남관에서 길을 건너 계산(해발 117m) 언덕으로 올라가면 옛 여수성곽의 포루였던 고소대가 있다. 이곳의 정자에서 이순신장군이 군령을 내렸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정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비각인 고소대이다. 비각 안에는 두 개의 보물이 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기록한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호)와 장군의 부하들이 장군의 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타루비(보물 제1288호)다..

고소대 담장 끝에서 이어지는 고소동 골목길에는 벽화가 가득하다. 고소동 천사벽화골목이라 불리는 이 길은 총 7개 구간 1,004m로 만들어지고 있다. 벽화의 소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바다, 여수의 모습 등이다. 그림에서 박람회의 역사도 찾아볼 수 있다. 구한말인 1893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가한 시카고세계박람회의 흔적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출품한 것은 가마, 도자기, 모시, 부채, 갑옷, 관복, 활, 화살 등이었다고 한다. 천사벽화골목을 걸으며 다양한 벽화 감상도 좋지만, 중앙동 앞바다 풍경도 놓치지 말자.

여수 시가지를 지나 돌산대교를 건너면 돌산도로 들어서게 된다. 돌산대교와 여수항의 전망대 역할을 하는 돌산대교공원,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인 무술목, 전라남도의 해양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 거북선으로 추정되는 방답귀선이 활동했다는 방답진 선소, 돌산 선비들의 공간인 돌산향교, 후박나무와 동백나무로 이루어진 상록수림이 아름다운 은적암, 여수의 대표관광지이자 일출명소인 향일암 등이 있다.

이중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은 가족여행자들이 반드시 들러 가는 장소다. 이곳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공간은 직접 만지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장체험수족관이다. 조개류는 물론 갯지렁이, 칠게, 짱뚱어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갯벌수조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여행을 마치면서 여수 선소유적과 소호요트장도 둘러볼 만하다.

〈레일&뉴스 유정우 기자〉

## 경조사

■ KR연구원 기술연구소 박선희과장 조모상
- 발 인 : 2011년 9월 23일(금)

KR상생뉴스(주간) | 발행인 김 광 재 | 발행일 2011. 10. 6(283호) | 편집인 김 재 규 | 기사문의 (042) 607-3083